SAEGAERO EDUCATION

# Stage 10 The Ghost Ship

## Cover Note & 본문 번역

| Cover Note | |
|---|---|
| **About this Book (책에 대하여)** | -어니는 학교 놀이터에서 유령선 한 척이 떠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. 반 친구 중 제이드만이 유령선을 볼 수 있자, 어니와 제이드는 힘을 합쳐 페그레그 선장의 보물을 찾아내고 유령선을 끝없는 항해에서 해방해요. |
| **Talking Points (대화 포인트)** | - 앞표지를 함께 보세요. 유령선이란 어떤 배일까요? 해적에 대해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.<br>- 13쪽을 읽은 후 아이에게 왜 유령선이 놀이터에 있었는지 물어보세요.<br>-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. |
| **Read aloud (소리 내어 읽기)** | - 17쪽부터 19쪽까지를 함께 읽고, 어니와 제이드가 보물을 어떻게 찾을지를 예상해 보세요. |
| **After reading (책을 읽고 나서)** | - 위긴스 부인과 제이드, 어니만 유령선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<br>- 이 이야기에서 제이드는 학교 언덕이 한때 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도서관에서 지역 역사 분야를 참고하면 여러분의 지역이 과거에는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.<br>-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면 마틴 워델의 다른 책을 읽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? |

| Story Book (본문번역) |
|---|

| | |
|---|---|
| **p3** | 1. 유령선<br>어느 날 어니는 학교에 지각했어요. 어니는 학교 언덕을 뛰어 올라가 울타리에 난 구멍으로 슬쩍 들어갔어요. 어니는 교장 선생님께서 보지 않기를 바랐어요. |
| **p4** | "우와!" 어니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.<br>놀이터 안에는 유령선 한 척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. 꼭 평범한 배 같았지만, 하얀색이었고 투명했어요. 어니는 유령선이 현실의 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. |
| **p5** | 유령선은 넷볼 골대에 묶여 있었어요. 이상한 빛이 유령선에서 은은히 뿜어져 나왔고, 배는 마치 보이지 않는 파도를 타는 듯 위아래로 흔들렸어요. 유령 갈매기 한 마리가 배의 주위를 날아다녔어요.<br>"이봐요, 유령선!" 어니가 용감하게 외쳤어요. |
| **p6** | 그러자 창문으로 유령이 머리를 쑥 내밀었어요.<br>"방금 누가 말했소?" 유령이 물었어요.<br>"내가요!" 어니가 말했어요.<br>"하지만 네가 나를 볼 수 있을 리가 없는데!" 유령이 놀라서 외쳤어요.<br>그러더니 유령이 다시 생각하고 말했어요.<br>"너 정말 나를 볼 수 있니?" 유령이 물었어요. |
| **p7** | "물론이죠." 어니가 말했어요.<br>그러자 창문이 탁 닫혔어요.<br><br>"내가 유령과 말을 하다니!" 어니가 외쳤어요.<br>학교의 관리인인 위긴스 부인이 어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. 부인은 놀이터로 달려나왔어요.<br>"내가 유, 유, 유령과 말을 하다니!" 어니가 더듬거렸어요 |
| **p8** | "쉿!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." 위긴스 부인이 말했어요.<br>"왜요?" 어니가 물었어요.<br>"1학급의 어린아이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으니 그렇지."<br>"하지만 놀이터에 유령선이 묶여 있잖아요. 쉬는 시간에 나오면 보게 될 거에요." |
| **p9** | "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란다." 부인이 말했어요.<br>"음, 저는 보이는데요."<br><br>"나도 마찬가지야." 부인은 한숨을 쉬었어요.<br>위긴스 부인은 유령선 앞으로 척척 걸어갔어요.<br>"어이, 유령선!" 부인이 소리쳤어요.<br>창문이 확 열리더니 아까 전의 유령이 머리를 내밀었어요. |
| **p10** | "어이, 안녕하시오, 위긴스 부인." 유령이 예의 바르게 말했어요.<br>"페그레그 선장!" 위긴스 부인이 꾸짖었어요. |

| | |
|---|---|
| | "나 말곤 아무도 당신을 볼 수 없다고 약속했잖아요. 하지만 4학급 학생이 방금 당신을 봤어요! 그렇지, 어니?"<br>"네, 방금요." 어니가 말했어요. |
| **p11** | "음, 그럴 수도 있다오." 유령이 속이 상한 듯이 말했어요.<br>"자주는 아니지만, 가끔 그렇소."<br>"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다면 여기서 계속 항해할 수 없어요!" 위긴스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.<br>"여기서 항해할 수밖에 없다오." 선장이 부인에게 말했어요. |
| **p12** | "왜요?" 어니가 물었어요.<br>"선원이 나밖에 없기 때문이지!" 선장이 말했어요.<br>"혼자서는 항해할 수가 없어서, 배가 바람에 밀리는 대로 가야 해. 이곳으로 더 자주 오면 좋겠는데. 그러면 내 보물을 찾아 다닐 수 있거든."<br><br>선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.<br>"나는 잃어버린 보물을 찾기 전까지 바다를 영원히 떠돌아야 하는 운명이야. 보물은 여기 있는 게 틀림없어. 지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." |
| **p13** | "이번엔 정말 찾는 게 좋을 거에요!" 위긴스 부인이 경고했어요.<br>창문이 탁 닫혔어요.<br>"유령 보물이라니! 빨리 4학급에 얘기해줘야지!" 어니가 말했어요. |
| **p14** | 2. "우린 안 보여!"<br>유령선을 보기 위해 아이들은 모두 쉬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어요. 그들은 교실을 나와 놀이터로 뛰어갔어요.<br>"저기 있다!" 어니가 유령선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.<br>모두 유심히 보았어요. 쓰레기통과 울타리는 보였지만, 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. |
| **p15** | "우린 안 보이는데?" 루이가 말했어요.<br>"하지만 저기 유령선이 분명히 있어!" 어니가 배와 배 너머를 동시에 쳐다보며 말했어요.<br>유령선은 투명하고 흐릿했어요.<br>"여기 유령선 같은 건 없어!" 루이가 말했어요.<br>유령 갈매기가 날아 내려오더니 루이의 머리에 앉았어요. |
| **p16** | "유령 갈매기가 방금 네 머리 위에 앉았어!" 어니가 루이에게 말했어요.<br>"아니, 안 그랬어!" 갈매기를 볼 수도 없고, 느낄 수도 없는 루이가 말했어요.<br>"아냐 그랬어!" 어니가 소리쳤어요.<br>"아냐 안 그랬어!"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고함을 질렀어요.<br>아이들은 어니가 유령 갈매기와 유령선 이야기를 지어냈다며 비웃었어요. 그리고는 놀이를 하러 가 버렸어요. |
| **p17** | 그때 4학급에서 가장 키가 작고 똑똑한 여학생인 제이드가 다가왔어요.<br>"저 유령선이 여기서 뭘 하는 거지?" 제이드가 어니에게 물었어요.<br>"너도 볼 수 있구나!" 어니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. |

| | |
|---|---|
| | "당연히 볼 수 있지." 제이드가 말했어요. |
| **p18** | "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보지만, 나랑 위긴스 부인은 볼 수 있어." 어니가 말했어요.<br>"이건 페그레그 선장의 배인데, 선장은 잃어버린 보물을 찾을 때까지 바다를 영원히 떠돌아야 할 운명이래. 페그레그 선장은 이곳 어딘가에 보물을 두었다고 생각해."<br>"우리가 보물을 찾는 걸 도울 수도 있어." 자그마한 제이드가 말했어요.<br>"어떻게?" 어니가 물었어요. |
| **p19** | "우리 아빠한테 보물찾기에 대한 책이 있어. 그 책을 보고 뭘 해야 할지 알아보자." 제이드가 말했어요.<br>"유령 보물찾기, 지금부터 시작한다!" 어니가 외쳤어요.<br>"유령 보물찾기는 아빠의 책을 읽어 본 다음 시작이야!" 제이드가 말했어요.<br>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.<br>"학교 끝나고!" 제이드가 어니에게 말했어요.<br>"학교 끝나면 모이는 거야. 늦지 마!" |
| **p20** | 3. 보물 찾기<br>학교가 끝나고 둘은 제이드의 집에 가서 아빠의 보물찾기 책을 꺼냈어요.<br>"여기 방법이 나와 있어!" 제이드가 어니에게 책의 한쪽을 보여주며 말했어요.<br>"하지만 우리는 이런 게 없잖아." 어니가 금속 탐지기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. |
| **p21** | "우리 아빠한테 있어." 제이드가 말했어요.<br>"아빠는 탐지기를 사용해서 바닷가에서 오래된 동전이나 물건을 찾으셔. 그래서 이 많은 보물찾기 책들을 갖고 계신 거야."<br>그들은 학교 언덕을 다시 뛰어올라 학교로 향했어요. 어니는 삽 한 자루를, 제이드는 금속 탐지기가 든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. |
| **p22** | "페그레그 선장!" 어니가 외쳤어요.<br>선장은 갑판에 있었어요.<br>"또 너로구나! 아직도 내가 보이니?" 페그레그 선장이 말했어요.<br>"네." 어니가 말했어요.<br>"당신이 유령 보물을 찾기 전까지 항해를 멈추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." 제이드가 선장에게 말했어요.<br>"우리가 보물을 찾는 걸 도와주고 싶어요." 어니가 덧붙였어요. |
| **p23** | "하지만 먼저 지도를 보여 주세요." 제이드가 말했어요.<br>지도는 찢어지고 헤진 데다,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어요.<br>"유령 갈매기가 이렇게 만들었어!" 페그레그 선장이 말했어요.<br><br>- 보물섬 –<br>X 표시된 곳이 보물<br><br>"여기 'X 표시된 곳이 보물'이라고 지도에 적혀 있네." 제이드가 말했어요.<br>"하지만 X가 안 보이는걸." |
| **p24** | "유령 갈매기가 X를 다 쪼아 먹었어. 표시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." 페그레그 |

| | |
|---|---|
| | 선장이 한숨을 쉬었어요.<br>"보물섬의 위치도 모르겠구나..... 하지만 이 근처에 있었다는 건 확실해."<br>"맞아요!" 자그마한 제이드가 말하고는 활짝 웃었어요.<br>"보물섬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곳이에요!" |
| **p25** | "어떻게 알아?" 어니가 물었어요.<br>"봐봐!" 제이드는 선장의 지도 뒷면에 그림을 그렸어요.<br>"뾰족 솟은 이곳이 학교 언덕이야!" 제이드가 어니에게 말했어요.<br>"지금 나랑 네 집이 있는 곳은 아주 오래전에 바다 밑이었대. 아빠가 말씀해주셨어." |
| **p26** | "그래도 어딜 찾아야 할지 모르잖아! 온종일 땅을 파고도 보물을 못 찾을 수도 있어." 어니가 말했어요.<br>"아빠의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면 돼." 제이드가 설명했어요.<br>"보물 근처에 가면 '띵' 소리가 날 거야."<br>"금속 탐지기가 유령 금에도 작동한다면 말이지!" 어니가 중얼거렸어요. |
| **p27** | "글쎄, 아마 작동하겠지." 제이드가 말했어요.<br>"적어도 한번 해 볼 순 있잖아."<br>그리고 이들은 보물을 찾기 시작했어요.<br>하지만 찾지 못했어요. 계속 찾고, 또 찾고..... |
| **p28** | 또 찾고, 또 찾고.....<br>그러다 갑자기 금속 탐지기에서 '띵 띵 띵' 소리가 났어요.<br><br>바로 보물이었어요! |
| **p29** | 어니와 제이드는 금으로 가득 찬 페그레그 선장의 보물 상자를 파냈어요. 유령 금이었기 때문에 진짜 금만큼 무겁지 않았어요. 둘은 보물을 배로 옮기기 시작했어요. |
| **p30** | 어쨌든, 그것이 이들의 계획이었지요. 하지만 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있을 때, 유령 보물 상자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. 페그레그 선장 역시 점점 희미해졌어요.<br>"잘 가요, 페그레그 선장." 제이드가 속삭였어요. |
| **p31** | "우리가 페그레그 선장의 보물을 찾아냈기 때문에 유령선은 사라져 버렸어." 다음 날 어니는 4학급에 이렇게 말했어요.<br>"유령선은 있지도 않았어." 루이가 말했어요.<br>"아냐, 분명히 있었어!" 어니가 소리쳤어요.<br>"아냐, 분명히 없었어!"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소리쳤어요.<br>어딘가 다른 곳, 아주 먼 곳에서, 유령 갈매기가 소리 내어 울었어요.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, 어니와 제이드, 위긴스 부인만은 들을 수 있었어요. |
| **about the author** | 나는 글을 쓰기 전에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,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대개 글을 쓰다가 갑자기 떠올라요.<br>이 책의 경우, 선장의 지도가 쓸모없어진 이유를 재치 있게 보여주기 위해 유령 갈매기 |

| | |
|---|---|
| **글쓴이의 말** | 가 등장해요. 그 이후에 나는 다시 돌아가서 재미를 위해 갈매기가 루이의 머리 위에 앉게 하였어요. 그리고 나서는 갈매기의 울음소리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<br>즉 내 계획에 있지도 않던 갈매기가, 이야기 진행의 핵심 요소가 되어버린 것이지요. |